

남성숙 칼럼



본사 사장

무등산은 신묘한 산이다. 많은 세월을 지나면서, 무등산을 오르고 싶은 현인들이 많았다. 화순현감으로 부임하는 부친을 따라 화순에 온 다산 정약옹(1762-1836)은 형들과 함께 무등산을 오른 후 ‘서석산 유람기’를 남겼다. 무등산을 유람한 사람 중에는 의병장 고경명(高敬命)도 있었다. 그가 쓴 ‘유서석록’(遊瑞石錄)은 조선시대 무등산의 면모와 선비들의 산행 모습을 익히 짐작해 볼 수 있다. 근·현대에 와서는 광주·전남 사람 뿐 아니라 전국 등산객들이 즐겨 찾는 산이 되었다. 인구 150만이 거주하는 대도시에 큰 산이 인접해 있는 탓에 광주사람들은 학창시절 소풍뿐만 아니라 직장 야유회도 무등산으로 갔다. 1980년 5월 이후에는 새해 첫날 무등산 중머리재나 서석대 등지에서 해맞이 의식을 하였다. 특히 무등산은 정치인들이 좋아한다. 광주에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 박원순 시장, 손학규 대표 등 유명인들이 광주에 오면 꼭 무등산을 오른다. 특히 고노무현대통령은 재임 중에 무등산에 올라 화제가 되기도 했다. 2007년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후 다음 날인 5월19일 오전 중심사 입구에서 출발하여 당산나무와 중머리재를 거쳐 장불재에 올랐다.

기고



조영환
수필가

지난 세월 동안 꽤 부지런히 살 수밖에 없었다. 크게 이룬 것은 없지만 많은 것을 시도했고, 직장에 꽤 많은 시간을 바쳤으며, 종교와 취미 활동을 위해 많은 시간도 할애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잘하지는 못했지만 열심히 했다. 그래서 나와 절친한 내 또래의 한 친구는 나에게 입버릇처럼 말한다. “자네는 몇 사람들이 평생에 할 일을 골고루 다 하고 있네.” 이것이 실제와는 거리가 먼 과찬(過讚)이지만 나이가 들어도 쉬지 않고 뛰어나다는 모습에 대해 선의와 우정으로 내린 총평(寸評)이라 생각하고 고맙게 받았다. 이와 같이 살아온 삶에 대해 내 심중에 남아 있는 후회 같은 것은 거의 없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있는, 더 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은 나에게도 남아 있다. ‘어떻게 살아 갈 것인가?’라는 물음은 모든 산 자의 연구와 생각의 주제이다. 나도 이런 과제를 안고 끊임없이 궁리하면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것이 별 의미가 없는 시기

독자 투고

공장화재 미리 예방하자

지난 20일 새벽에 경북 구미의 한 전자부품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길 이 주변 공장으로 번지면서 공장 6 개동이 불에 타 137억의 재산피해를 입혔다. 공장의 증가는 화재발생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공장에서 발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등산이 허락한 노무현

그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장불재에 도착하여 한 너럭바위에 올라 육성으로 연설을 했다. 사람 사는 세상을 주창하며 이상과 현실 속에서 고뇌했던 집권 5년 동안의 경험을 얘기했다. 현직 대통령의 무등산 첫 산상 연설인 셈이다. 그 당시 고 노무현 대통령은 방명록에 ‘아, 참 좋다’고 적었다. 지난 2009년 5월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자 광주광역시에는 2011년 11월16일 ‘무등산 노무현 길’을 여덟 번째 법정 탐방로로 정하면서 무등산에는 ‘노무현 길’이 공식 탐방로로 선정됐다. 무등산 증심사에서 -중머리재-장불재 구간 3.5km다. 사실 무등산은 까다로운 산이다. 아무나 받아주지 않았다. 고려말 이성계는 무등산에 와 빌며 왕업을 이루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었으나 무등은 이를 거절했다. 고려말 명신·의명장들을 다 죽이고 조선을 개국한 태조 이성계는 나라에 가뭄이 들자 무등산에서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무등은 쿠데타로 왕위를 찬탈한 정통성이 없는 왕에게 비를 내리지 않았다. 이에 분노한 이성계는 무등산신을 지리산으로 귀양 보내고, 왕명을 거절한 이 산을 무정한 산이라는 의미의 ‘무정산(無情山)’이라 부르게 했다. 이성계를 거부한 무등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은 풀어 안았다. 무등산은 노무현 바람, 이른바 ‘노풍(嵐風)’의 전원지 광주도 만들어나갔다. 2002년 대선에서 호남의 압도적 지지로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대통령이 되기 전인 1999년 4월, 새정치국민회

의 부총재였던 노무현의원은 광주를 찾았다. 강연이 끝나고 뒤풀이에서 노무현은 “광주시민 여러분들이 저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시면 무등산에 오르겠다”라고 약속했다. 오늘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다. 정치인들은 간혹 노무현 정신을 얘기한다. 필자는 노무현 정신과 무등정신·광주정신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한다. 봉하에 있는 노무현 전대통령 묘소 너럭바위 기단에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고 새겨져 있다. 노무현 정신의 압축적 표현이다. 공동체정신으로 민주주의를 태동시킨 광주정신과 맥이 통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무등산 장불재 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다. ‘좀 더 멀리 봐주시요. 역사란 것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멀리 보면 보입니다. 눈앞의 이익을 쫓는 사람과 역사의 대의를 쫓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의만 따르면 어리석어 보이고 눈앞의 이익을 따르면 영리해 보이지만 그러나, 멀리 보면 대의가 이익이고 가까이 보면 이익이 이익입니다.’ 이게 노무현정신이다. 노무현 정신에 대해 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은 ‘이로움과 이로움이 충돌할 때의 이로움을 위해 이로움을 버릴 수 있는 삶의 자세’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억압받고 소외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애정과 특권 반직없는 사회를 위한 투쟁’이라고 했다. 한평생 전 국 부총재는 ‘국민에 대한 신뢰, 소통과 화합의 정신’이라고 말했다. 이외에 ‘사람답게 사는 세상’ ‘탈권위와 자

율의 가치’ ‘또 다른 세상을 향한 포기하지 않는 원정’ 등을 얘기한다. 그러나 그가 떠난 10년, 노무현 정신을 누구나 얘기하지만 그의 정신을 잘 이어가고 있는 이는 드물다. ‘국민참여’와 ‘사람사는 세상’을 이어받았는지 몰라도 자신을 내던지는 희생의 정치는 낙제점이다. 자신의 정치생명을 걸고 지역주의타파나 원칙이 바로 서는 세상을 위해 몸을 내던지는 정치인을 지금 찾아보기 어렵다. 되레 혐오의 정치가 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혐오의 정치는 일부 정치인과 소수 극단주의자를 넘어, 보통의 당파적 지지자들에게로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그들의 극단성에 의지하며 그것을 방랑타로 삼아 뿌리 없이 뻗어가고 있다. 이대로 계속 혐오정치가 계속된다면 아니라 정치는 외면당할지 모른다. 제대로 계승되지 못한 무등정신-노무현 정신은 증오의 정치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 도덕적으로 가까이하기 힘든 정당과도 연정을 해야 한다고 결단한 노무현 정신에서 왜 배우지 못하는 것일까. 이리다간 촛불정신까지 훼손될까 두렵다. 5월에 무등산 노무현길을 따라 걸으면서, 울긋불긋 화려한 색깔로 한바탕 꽃대궐을 이뤘던 봄꽃이 물러가고 짙어졌, 아카시아꽃 향기 가득한 여름꽃을 본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5월19일 이 길에서 무등산 여름꽃을 보았을까? 오늘 우리에게 ‘노무현 정신’은 어떤 의미인가.

‘삶과 죽음’ 꺼안고 살기

아닐 수 없다. 나의 부친은 35세에 운명을 달리 하셨지만 어머니는 94세 여생을 건강하게 누리면서 아버지 못까지 살아가고 계신다. 생각나는 대로 말하면, 주어진 운명이랄까? 죽음은 진실로 잠과 같은 것이다. 우리가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서 잠을 자면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깨어 일어나는 것처럼, 사람이 무덤이라는 침상에 누워서 동한 잠을 잔 후에는 반드시 다시 깨어난다는 것이 영원한 생명의 도리인 성경의 가르침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녁에 잠자리에 아무 걱정 없이 누워서 자듯이, 죽음이라는 좀 긴 잠도 편안한 마음으로 맞이하며 아침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다. 이제 남은 날들을 아름답고 기쁘게 살아보자는 것이다. 우리가 스스로 생명을 연장하는 일에는 한계가 있고, 아무리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애써도 뜻대로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날마다 새날을 맞이한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즐겁게 사는 것이다. 이러한 삶에는 남을 위한 봉사과 이웃에 대한 배려 그리고 더 크게는 내 주위 공동체와 더불어 있게 살아가는 것이다. 거기에는 행복이 있고, 그러한 삶은 아름답고 의미가 있는 것이다.

자신만을 위한 삶에서는 보람이나 행복을 느끼기는 불가능하다. 모든 이기심을 버리고 이타심을 발휘하며,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습관을 형성하면 참으로 행복하게 살수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나를 만드신 창조자에 감사하면서 살자. 내가 선하고 의롭게 살고자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을 때, 혹시 무서운 질병에 걸려서 백방으로 노력해도 치료되지 않을 때, 나는 나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깊이 인식하고 전능하고 초자연적인 존재를 의지하면서 살아 갈 수밖에 없다. 내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난관에 봉착할 때, 자신에 대해서나 타인에 대하여 화를 내거나 분통을 터뜨리지 말고 조용히 나를 만드신 전능자에게 맡길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야한다. 나를 용서하지 못하면 암이 생기고,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심장병이 생긴다. 아직도 독력으로 큰일을 성취해야겠다는 욕심은 버리고, 능력이 닿는 범위 안에서 차분하게 일하면서 나이가 들어 갈수록 여유롭게 살아가도록 노력해야한다. 이렇게 살다가 죽음이 찾아오면 마치 고단한 하루를 보내고 잠을 자듯이 조용히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아야한다.

社說

세계수영대회 D-50 ‘성공 개최’ 만전기해야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7월12일-8월18일)가 오늘로 D-50일이다. 경기장 시설을 비롯 운영체계, 관객객 맞을 준비, 불조성 등 세밀한 점검이 초요기에 들어간 셈이다. 이에 따라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오는 개막 50일을 앞두고 광주를 찾아 직접 입장권을 구매하고 대회 시설을 점검한다고 한다. 박 장관은 이용섭 광주시장과 조영택 사무총장 등과 함께 대회 전반적인 준비상황에 대해 보고 받고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현재 선수촌과 경기장 건설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관상구 송정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해 25개동 6000여명 동시 입실이 가능하도록 지어진 선수촌은 이미 준공돼 조직위에 이관됐다. 경영과 다이빙 경기가 열릴 주경기장인 남부대 국제수영장의 공정율은 85% 이상이다. 다음달 5일 개막하는 동아수영대회에서는 완공된 모습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남부대종합운동장(수구), 조선대체육장(하이다이빙)도 80% 이상 공사가 진척됐다. 가장 큰 관심사인 북한 선수단 참가 여부는 지금으로서도 불투명하다. 북한 참가 여부에

대해서는 조직위를 비롯해 정부, 국제수영연맹(FINA)와 협의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바는 없는 상황이다. 수영대회 조직위원회는 광주시를 통해 통일부에 평양 교예단과 예술단의 참여를 요청했으며,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입장권 판매는 발행량의 90%인 37만매(75억원)가 목표 판매량이지만, 현재로서는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또 FINA 임원, 초청인사 등이 머물 숙박시설이 부족하고 선수단을 실어나를 수송대책이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속한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이번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는 200여개 국에서 1만5천여 선수와 임원들이 참가하고 세계 10여명이 TV로 시청할 예정이다. 그리고 해외에서 2만명 이상 관광객들이 광주를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광주시와 조직위는 남은 기간동안 세밀한 준비를 통해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광주시민 모두가 서포터즈가 되어 아름다운 남도의 따뜻한 정을 느끼고 즐거운 추억을 담아갈 수 있도록 관광객 맞을 준비에 정성을 다해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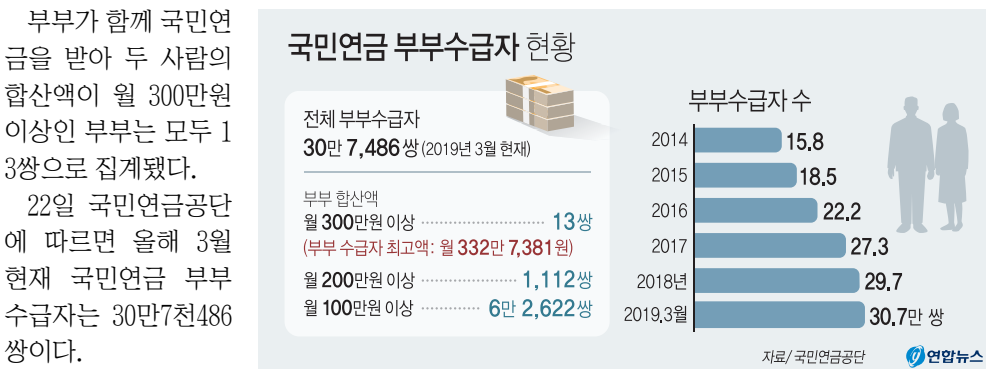
노 전 대통령 10주기 ‘사람사는 세상’ 뜻 잇자

한 평생 ‘사람사는 세상’을 염원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았다. 2009년 5월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해고향마을 봉화바위에 몸을 던진지 날, 온 국민은 충격속에 눈물과 탄식으로 애도해 했다. 그리고 온 산하가 깊은 상실감에 잠겨 심연으로 가라앉았다. 무등산도 80년 5월 그날처럼 숙연한 그림자로 선 채 침울한 산빛을 발했다. 노 대통령이 누구보다도 80년 5월 광주의 아픔을 헤아리며 신군부의 무자비한 악행을 온몸으로 고발했기 때문이다. 장례기간중 봉하마을에만 100만명의 추모행렬이 발나트고 이어졌고 전국적으로 500만 명이 분향소를 찾았다. 오늘도 10년 전 그 날처럼 봉하마을에 정치인과 국민 등 수많은 안파가 집결해 노 전 대통령의 삶과 뜻을 되새기며 추모한다. 특히 방한 중인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도 참석해 추도사를 하고 직접 그린 노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유족에게 선물할 예정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누구에게나 스스럼없는 대상, 때로는 나와 같은 처지, 같은 고통과

억울함을 겪었을 거라는 ‘동질감’을 국민들에게 심어주었다. 노 전 대통령의 정신과 발자취는 보수, 진보라는 정파를 뛰어넘어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실천적으로 보여준 사례였다. 노 전 대통령이 평생을 던져 노력해온 화두는 정치개혁, 지역주의 극복, 국가균형발전, 남북 평화번영이었다. 한마디로 ‘사람사는 세상’에 대한 염원을 화두로 남겨놓았다. 이는 죽음으로써 국민들 가슴속에 새롭게 부활했고 그들의 못다 이룬 정치적 신념을 다시 현실 속에 추동시키고 있다. 지금은 비록 한줄 새로 해탈했지만 ‘타고난 재가 다시 기쁨이 되듯이’ 국민들에게 ‘사람사는 세상’으로 가는 길을 밝히는 등불로 타오르고 있다. 노 전 대통령 서거한 지 10년 세월이 흘렀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람사는 세상’을 향한 외침은 아직도 우리 가슴 깊이 남아있고, 앞으로도 오래도록 우리와 함께할 것이다. 노 전 대통령 10주기를 맞은 오늘 지역주의 극복, 국가균형발전, 남북 평화번영 등 국민들의 갈망이 더욱 뜨겁다.

그래픽 뉴스

부부 합쳐 국민연금 월 300만원 넘게 받는 부부는 13쌍



남편과 아내 각각의 국민연금을 합쳐 월 300만원이 넘는 부부수급자는 13쌍이다. 두 사람 합쳐서 월 200만원 이상 부부수급자는 1천112쌍, 월 100만원 이상 부부수급자는 6만2천622쌍이다. 부부합산 최고액 부부수급자는 월 332만7천381원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제도에는 1988년 도입돼 해를 거듭하면서 부부수급자도 매년 늘고 있다. 부부수급자는 2014년 15만8천142쌍에서 2015년 18만5천293쌍, 2016년 22만2천273쌍, 2017년 27만2천656쌍, 2018년 29만7천186쌍으로 30만쌍에 육박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 개인별로 노후 위험(장애, 노령, 사망)을 대비하도록 보장하는 사회보험으로 부부가 모두 가입하면 보험료를 낸 기간에 따라 남편과 부인 모두 노후에 각자 숨질 때까지 연금을 받는다. 다만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다가 한 사람이 먼저 생을 마감하면 사정이 달라진다. 이른바 ‘중복급여 조정 규정’에 따라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에서 유리한 한 가지를 골라야 한다. 국민연금은 자신이 낸 보험료만큼만 받는 민간연금상품과는 달리 사회보험으로 소득재분배 기능도 갖고 있어 사회 전체의 형평성 차원에서 한 사람의 과다 급여수급을 막고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장치를 뒀다. 한 사람에게 두 가지 이상의 연금급여가 발생하면 한 가지만 선택하도록 한 중복급여 조정 이 그것이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南成淑 주필 朴俊洙 편집국장 吳星洙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국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광고국 650-2016 편집국 650-2017 입무국 650-2019
	정지부 650-2030	체육부 650-2065	광고문의 650-2072	
	경제부 650-2050	채운부 650-2080	경영지원국 650-2010	
	사회부 650-2040	채운부 650-2080	기획사업국 650-2079	
	문화부 650-2067	서울지사(02) 786-9488	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刊)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